

# 진짜사장·진짜교섭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청 단체협약 쟁취!  
금속 산별교섭 완성!  
노동자 단결과 연대!

현대제철비정규직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아산 천안 서산 아산물류 비엠아이

## 시행령·해석지침 따위가 교섭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

**도와주지 않을 꺼면 나서지 마라**

**악법은 어겨서! 권리는 투쟁으로!**

이재명 정부가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시행령을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확정,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전제로 설계하여 원청자본과 직접 교섭을 방해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교섭의제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노동부 해석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하는 길에 시행령, 해석지침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노동부 관료 몇몇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원청교섭이 성사될 수 있는 지원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노사가 알아서 교섭장에서 다투고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노동부가 원청교섭 촉진자는 커녕 교섭을 회피하려는 원청 사용자에게 무기와 핑계거리를 얹혀준 셈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지 말라면 멈출 우리가 아닙니다. 정부와 자본, 사법부가 그어놓은 선을 넘겠다는 것이 원청교섭 투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행령, 해석지침 따위는 무시하고 갑니다. 유불리를 따지지도,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자문기구를 두고 사용자성을 판단하겠다는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희대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박살냅시다. 악법이 살아있다면 어겨서 깨뜨립시다. 타임오프, 회계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의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현장이야기 1



### 10년의 하청교섭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회는 2021년부터 현대제철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회사와 하청지회가 임금, 성과금을 직접 교섭해서 합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며, 산업안전 문제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공정과 설비는 수 십년째 변하지 않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동을 합니다. 그 사이 하청업체 이름만 여러 차례 바뀝니다. 고용은 늘 불안했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10년의 하청교섭 경험은 우리의 임금, 고용, 복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 요구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모든 부지와 설비는 현대제철 소유이고, 생산계획과 공정운영 역시 원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직접 지시가 매일 이루어지며, SNS를 통해 업무보고와 결재를 받는 행위도 만연합니다. 산보위 회의록에는 하청업체의 답변이 항상 "원청에 요구하겠다"로 나옵니다. 하청업체는 임금성, 산업안전, 복지시설, 차량출입증과 같은 의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을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으로 대응했고, 하청업체들은 일제히 통폐합을 강행합니다. 우리는 집단해고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와 맺은 단체협약과 합의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최명식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